지혜가 '화'가 되는 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⑦ 칼날 위의 일(劍刃上事)

임제가 법좌에 오르니 어느 스님이 물었다.

"칼날 위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화가 되는 일이지, 화가 되는 일이라네."

스님이 머뭇거리니 임제가 바로 때렸다.

'칼날 위의 일'을 물었다. '칼날 위의 일'이란 지혜를 상징하는 말이다.

취모검(吹毛劍)이란 말이 있듯이 예리한 칼날이 토끼털 같은 털에 닿으면 털이 싹둑 끊어질 정도로 날카로워 일체 번뇌를 다 잘라버린 무념ㄴ무상(無念無想)의 지혜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량분별(思量分別)이 떠나간 경지로 식심(識心)이 끊어진 것을 말한다. 이걸 물었더니 화 되는 일이라고 거듭 말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무섭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란 말이다. 칼날이 너무 예리하니까. 머뭇거리자 또 한 대 때린다. 할을 했다가 때렸다가 임제는 법을 이렇게 보여준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저 '석실행자'가 방아를 찧다 발 움직이는 것을 잊어먹었다 하는데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깊은 샘에 빠졌느니라."

'석실행자'의 이야기가 나왔다. 청원행사(靑原行思 · ?~741)의 3세손에 석실선도(石室善道)가 있었는데 이 스님을 석실행자라 불렀다. 목평(木平)이라고도 하는데 생몰연대가 밝혀지지 않았다. 당나라 무종(武宗)때 회창사태가 일어나 불교를 폐하려고 할 적에 난을 피하여 속복을 입고 돌방아간에서 방아 찧는 일을 했으므로 목평을 석실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때 석실이 방아를 찧다 선정에 들어 발 놀리는 것을 잊어먹었다는 설화를 두고 발 옮기는 것을 잊어먹은 뒤엔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다. 답이 깊은 샘에 빠져버렸다 한다. 깊은 샘에 빠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심하게 말하면 샘에 빠져 죽었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 깊은 무아지경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잘된 일일 텐데 임제는 이를 긍정하여 말한 것 같지도 않다.

임제가 말했다.

"다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보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대하지 않고 모두 그들이 오는 곳을 알아차리느니라. 만약 이렇게 오면(쉽게 오면) 실각하게(자격 잃게) 되고 이렇게 오지 않으면(어렵게 오면) 줄이 없는데도 스스로 묶는 격이니 언제나 함부로 짐작하지 말라. 알든 알지 못하든 모두가 그르쳤다. 분명히 이렇게 말해서 천하 사람의 폄박(貶剝=평판)에 맡겨 두노라. 오랫동안 서 있느라 수고했구먼."

임제가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할 때 철저히 관찰한다는 말이다.

말을 순순히 고분고분하게 하는 사람이나 도전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나 자기 견해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알거나 모르거나 말에서 알려하는 자기 입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말 이전의 말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말 이전에 눈썹이 먼저 말한다(聲前眉語傳)'는 말도 있다. 또 눈이 마주치는 데 도(道)가 있다(目擊而道存)는 말도 있다.

〈조계종 고시원장〉

보리 자량 십바라밀

〈菩提〉



세상 속 경전읽기

⑦ 선혜(善慧)의 바라밀 수행

〈남전대장경(南傳大藏經)〉의 '본생담' 서론에 해당하는 〈니다나카타(Nidāna-kathā, 因緣譚)〉 중 '먼 인연담'에서, 연등불의 수기를 받은 선혜(善慧) 보살은 붓다가 되기 위한 기본법을 두루 찾다가, 옛 보살들이 제일 먼저 행한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현자 수메다(선혜)여! 만일 보리(菩提)를 얻고 싶으면, 첫째로 보시바라밀을 완성하라. 마치 물이 가득한 물병을 넘어뜨렸을 때 한 방울 물도 남기지 않고 다 쏟듯이, 누가 네게 와서 무엇을 구하거든 그의 귀천(貴賤)을 따지지 말고 남김없이 보시하되 저 넘어진 물병처럼 하라. 모두 보시한 뒤에 보리수 아래에 앉으면, 반드시 붓다가 될 것이다."

선혜는 붓다가 되는 기본법이 1)보시(布施-재물과 진리를 베풀고 안심시킴) 바라밀만이 아닐 것이라 여기고 계속 모색하다가 2)지계(持戒-계율을 지킴), 3)출리(出離-번뇌의 속박을 떠남), 4)지혜(智慧-무명을 떠나 실상을 깨달음), 5)정진(精進-게으름 없이 진리를 향해 나아감), 6)인욕(忍辱-찬탄과 멸시를 견딤), 7)진실(眞實-진리로부터 이탈하지 않음), 8)결정(決定-흔들리지 않음), 9)자(慈-멀고 가까운 모든 이에게 사랑을 베품), 10)사(捨-고락에 평등한 마음)바라밀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10바라밀은 외부의 사방사유상하(四方四維上下)의 열 방향 어디에도 없고, 오직 마음속에 있음을 깊이 새겨야 한다.

그리고 심천(深淺)에 따른 세 가지 10바라밀이 있으니, 보통 바라밀, 근소(僅少) 바라밀, 최상(最上) 바라밀이 그것이다. 몸을 움직여 하는 것은 보통 바라밀이고, 소유물인 재물로 하는 것은 근소바라밀이며, 생명을 바쳐 하는 것은 최상 바라밀이다.

선혜의 이러한 사유가 궁극에 이르자, 대지가 진동하여 람마바티(희락성)의 주민들은 서 있을 수 없어 기절하여 넘어졌다. 도공들이 만든 모든 그릇도 넘어지며 서로 부딪쳐 산산조각이 났다. 주민들이 두려워하며 연등불전에 나아가, 대지가 진동하는 연유를 묻자, 연등불께서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이 대지의 진동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오는 세상에 붓다가 될 것이다'고 예언한 젊은이 선혜가 옛 선인들의 길을 따라 보리를 깨닫는 10바라밀을 남김없이 생각하자 그 때문에 이 땅과 십천(十千)의 인천(人天) 세계가 흔들리는 것이다."

주민들은 연등불의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선혜에게 가서 꽃과 향을 올리며 예배하였고, 천인(天人)들도 꽃과 향을 올리며 "빨리 열 가지 바라밀을 완성하여 최상의 보리를 증득하시라"고 찬탄하였다. 이에 선혜는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열 가지 바라밀을 행해 이루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이후 1)연등불이 무여열반에 드시자, 2)콘다냐붓다(Koṇḍañña, 憍陳如佛),.....19)비파씨붓다(Vipassī, 毘婆尸佛), 20)시키붓다(Sikhī, 尸棄佛), 21)베싸부붓다(Vessabhū, 毘舍浮佛), 22)카쿠산다붓다(Kakusandha, 拘留孫佛), 23),코나가마나붓다(Koṇāgamana, 拘那含牟尼佛), 24)카샤파붓다(Kassapa, 迦葉佛) 등 24분의 붓다가 세상에 출현하셨다.

선혜는 전생(轉生)을 거듭하면서 이들 24붓다 아래에서 서원을 세우고 수기를 받고, 4아승지 10만겁 동안 보리(菩提)를 이루는 자량(資糧)인 10바라밀을 닦아왔다. 그리하여 마침내 일생보처 보살로 도솔천을 거쳐 카필라성에 태어나고 25번째 고따마붓다(Gotama, 瞿曇)가 된 것이다.

이상에서 소승의 팔리 경장에서도 10바라밀이 붓다가 되는 보리자량(菩提資糧)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의 10바라밀 중 1)보시(布施바라밀, 2)지계(持戒)바라밀, 4)지혜(智慧)바라밀, 5)정진(精進)바라밀, 6)인욕(忍辱)바라밀의 다섯 가지는 대승의 6바라밀에서 선정(禪定)바라밀만 빠진 것이다. 그리고 3)출리(出離)바라밀, 7)진실(眞實)바라밀, 8)결정(決定)바라밀, 9)자(慈)바라밀, 10)사(捨)바라밀의 다섯 가지는 대승의 10바라밀에 없는 것이다. 그 중 9)자(慈)바라밀, 10)사(捨)바라밀은, 대승의 4무량심(無量心)의 자비희사(慈悲喜捨)중 두 가지이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㊸ 이해의 길 33

격의, 중국인 불교 이해 방식

〈格義〉

13세기 초 불교는 인도에서 자취를 감추었지만, 붓다의 가르침은 히말라야를 넘어 실크로드를 통해 저 멀리 중국과 티베트, 한국, 일본에까지 전해졌다. 남방으로는 스리랑카, 태국 등지로 널리 퍼져 지금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불교가 해외로 전파되는 데 아소카왕의 공이 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여동생을 스리랑카에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전법을 위해 많은 승려들을 이집트, 시리아, 마케도니아 등에 보내기도 하였다. 아소카는 전륜성왕(轉輪聖王), 즉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성스러운 왕이었다.

이처럼 불교는 여러 나라에 전파되면서 새로운 문화와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고유 사상과의 한판 대결은 불가피했다. 특히 문화적 자부심이 강한 지역일수록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대결은 더욱 치열했다. 문화와 사상 역시 박힌 돌과 굴러온 돌의 경쟁 속에서 화려한 꽃이 피기 마련이다.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기 전에 이미 그곳은 공자와 맹자, 노자, 장자, 순자, 묵자 등 뛰어난 사상가들을 배출한 지역이다. 흔히 제자백가(諸子百家)라고 불리는 사상체계가 불교가 전파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완성되어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불교라는 새로운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중국인들은 스리랑카를 비롯한 남방 지역과는 달리 불교를 원형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화적 프라이드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얀 도화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로 색칠된 도화지 위에 불교라는 그림을 그려넣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고유사상인 유교와 도교의 시선으로 불교를 해석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불교 이해 방식을 격의(格義)라고 한다. 매우 낯선 불교의 뜻(義)을 자신들의 언어로 헤아리고자(格) 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예컨대 이탈리아에 가서 처음으로 스파게티를 먹고 온 사람이 이 음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스파게티는 '서양 국수'라고 말이다. 그러면 피자는 자연스럽게 '서양 빈대떡'이 된다. 비록 스파게티와 국수는 다른 음식이지만, 스파게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익숙한 국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이러한 격의의 방식으로 낯선 인도의 문화를 이해하였다. 불교가 들어온 지 오래 지나지 않은 위진(魏晉)시대에 주로 유행하였다. 그들은 불교의 공(空)을 도가의 무(無)로, 열반(涅槃)을 무위(無爲)로 해석하였다. 비록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고유 사상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유학에서는 불교의 5계(戒)를 5상(常)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즉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음주를 금하는 불교의 계율을 유교에서 중시하는 다섯 가지 덕목인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으로 설명한 것이다.

물론 살생하지 말라는 불교의 계율을 유교의 인(仁)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둘 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근저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계율과 유교의 덕목 가운데 일부 유사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발생 배경이나 의미는 서로 다르다. 마치 스파게티와 국수 모두 밀가루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두 음식이 다른 것과 같다. 피자와 빈대떡은 둥근 모양이 비슷할 수는 있어도 동일한 음식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공과 무, 5계와 5상은 서로 의미가 다르다.

이러한 격의불교는 중국사상과의 융합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불교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는 역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 어떤 사상도 살아남을 수 없는 법이다. 이러한 성찰이 일어나면서 제대로 된 불교를 중국에 전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었다. 마침내 중국인들은 불교는 도교, 유교와 구별되는 고유의 사상체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국수는 국수였고 스파게티는 스파게티였던 것이다. 퓨전 스파게티, 즉 불교의 중국화는 그 다음 일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